

이 소설은 이대범 큐레이터가 미술 작가들의 내러티브가 있는 글쓰기를 모은 프로젝트 <소설 01: 이준호를 찾아서> (2010)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기획자는 작가들에 이야기 속에 '이준호'라는 인물을 한 번 이상 등장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주었다.

### <Not A But B (A가 아니라 B)><sup>1</sup>

이준호<sup>2</sup>는 1925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말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만주 등지에서 탈출한 학도병들이 독립군에 합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퍼트려, 항일 투쟁의 분위기를 북돋았고, 또한 그것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그가 한국 역사에 있어서 보기 드물게 용맹하고, 정의로웠던 지식인이었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 친구 분의 부친이다. 아버지가 약주라도 하는 날에는, 나와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분의 무용담과 그분의 애국적 용맹함에 대한 아버지의 무한한 찬양을 듣고, 또 들어야만 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눈앞의 그림을 보듯 생생하게 설명하곤 했다. 아버지의 아버지, 즉 내 할아버지는 평생 변변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한량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을 친구 분의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으로 전환하신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그분에 대한 아버지의 남다른 열정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 놓았다. 그러니 딸인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느낀 실망이 얼마나 컸을 지는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준호' 그 이름 석 자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준호가 되었다. 나는 동네의 작은 보습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학원에는 원장을 제외하면, 나를 포함해, 영어과 선생님 두 명, 수학 선생님 두 명, 그리고 국어 선생님 한 명이 있다. 경리를 보는 아가씨와 나를 제외한 모든 선생님이 남자다. 학원 근무는 3시부터 시작돼서 밤 10시에 끝난다. 학원에서의 일과는 언제나 똑같고 상당히 반복적이다. 아이들은 매일 80분 단위로 수업을 듣고, 10분 정도의 소란스러운 이동 시간을 가진 후, 다시 80분 동안 몇 개의 교실로 흩어져 사라진다. 한 학생이 학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비슷한 학생이 새로 들어와 다시 그 자리를 메운다. 나는 A반에서 화요일날 가르친 문법을, 목요일 B반에서 그대로 똑같이 가르친다. 새로운 문법이나 표현을 가르칠 일은 전혀 없다. 입시 시험에 맞춘 문형들과 문법들만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시킬 뿐이다. 당연히 새로운 것을

<sup>1</sup> 장재진. 1992. <Man-to-Man 종합영어 II: 동명사편>. 서울: 맨투맨. p30

<sup>2</sup> 이준호 (李濬鎬, 1925. 10. 17 ~ ): 전라북도 군산 출신. 일제 강점기 말기에 활동한 독립 운동가로 일본의 패전을 예고하며 동지규합에 힘쓰는 등 항일 투쟁에 앞장섰다. 1983년에 대통령 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궁금해하는 학생도 없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다음 수업을 위한 유인물을 만들고, 그것을 정확히 10장씩 복사한다.

오늘도 6명의 아이들이 내 앞에서 80분을 거의 버텼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조동사 will의 기타 용법을 복습하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 짓겠어요.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honor.<sup>3</sup>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 이 문장이랑 같은 의미의 문장이 뭐가 있다 그랬지? P로 시작하는 동사 들어가는 거!” 아이들은 그런 건 전혀 배운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 본다. 눈을 피하는 아이도 있고, 슬슬 가방을 챙기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아이도 있다. 전혀 새롭지 않은 광경이다. 난 한번 더 소리를 지른다. “뭐야, 아무도 몰라? 너희들, 저번 시간에 prefer A to B 배웠잖어! I prefer dying to living in dishonor!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 뭐, 이래서 너희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니?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들 영어를 못해서…”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한다. “선생님은 영어를 잘 해도 훌륭한 인물이 된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킁킁 웃어댄다. 나는 할말이 없다. 80분의 수업도 지겹고, 아이들도 지겹다. 가방을 둘러 매고, 거의 몸을 일으켜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들을 향해, 나는 중얼거린다. “Would rather A than B는 Prefer A to B랑 같고, 여기서 to는 전치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 To 부정사랑 헷갈리지 말아라……” 입안에서 뱀도는 영어 단어들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서걱거린다.

아버지는 내가 이준호 열사처럼 나라를 위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했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정의롭고, 용감하며, 여자지만 남자처럼 당차게 살아야 한다고 틈만나면 강조했다. 내가 사학과를 지망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버지의 추상적인 애국심에 영향을 받아서였는지는 사실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 과가 다른 과에 비해 학생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다. 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결론 없는 토론을 벌이며 선배들과 술을 퍼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렸던 밤을 기억한다. 술 취한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나 주장들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던 칼칼한 소주 냄새와 매캐한 담배 냄새를 기억한다. 그리고, 어차피 지키지 못했던 잔디 광장 공사를 반대하던 집회와 언제나 결국은 실행되고 마는 등록금의 인상 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수업 거부, 한총련 소속 친구들과 함께 했던 소란스럽고 긴장감이 넘치던 행진들을 기억한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이 이준호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훌륭한 이준호. 하지만,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집회에 참여하거나 학생회 활동을 했을 일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틀어박혀, 토익이나 고시 공부를 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왜 그 때는 몰랐을까?

<sup>3</sup> 장재진. 1992. <Man-to-Man 종합영어 IV: 조동사편>. 서울: 맨투맨. p19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우리나라는 IMF의 위기를 맞았다. 미디어에서는 연방 늘어만 가는 실직자들과 사상 최악의 취업률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그 암울한 해에 졸업을 해야 했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저주받은 학번’이라고까지 부르곤 했다. 그 해에 졸업하지 않기 위해, 군대에 가지 않고 있었던 남자 동기들은 미루었던 입영을 서둘렀고, 집이 좀 여유 있었던 친구들은 휴학 신청을 한 채, 미국으로 어학 연수를 떠나거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나에게는 4년 동안 빌려 쓴 학자금 대출금이 서둘러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아 있었다. 명예퇴직을 당하신 아버지도 내가 빨리 졸업을 해서 자리 잡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른 동기들이 다 기피하던 그 해에, 서둘러 졸업을 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토익 점수나 자격증 대신에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경력을 가진 평범한 대학의 사학과 졸업생을 환영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다시 오후 3시. 오늘은 5시 중학반 수업이 첫 수업이다. 중간 고사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신 대비 프린트물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마다 쓰는 영어 교과서가 달라서, 몇 가지 다른 버전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덕풍과 남영은 지학사 (a), 백운과 현경은 동아. 번거롭게 동남 고등 학교만 천재 교과서를 쓴다. 그래도 중간고사 기간이 가까이 오면 평소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긴다.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시간이 분산돼서 훨씬 한가롭고, 수업도 평소보다 짧게 끝난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학원이 텅 빈 느낌이다. 교무실에도 나와 영어 선생님 둘 뿐이다. 옆에서 주식 사이트를 말없이 들여다 보고 있던 영어 선생님이 나를 한번 흘끔쳐다 보더니 말한다. “오늘 학원이 좀 썰렁하죠? 유국어가 때려치고 나갔거든. 원장이랑 싸웠거나 어쨌거나. 원장이 국어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장난도 아니었어. 원장은 열받아서 수학기랑 밖에 담배 피우러 나갔고, 미스리는 놀란 것 같더니, 어디 슈퍼 갔나? 박경수 선생은 오늘 안보이네, 수업이 늦게 있나봐” 그랬구나. 국어 선생님 성씨가 유씨였구나. 반년을 같은 학원에서 일하면서 같은 교무실을 썼는데, 난 국어 선생님의 이름은 커녕, 성도 모르고 지냈다. 뭐, 곧 다시 새로운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겠지. 그만 두고 나간 국어 선생님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이 열이 잔뜩 받은 얼굴로 씩씩거리며 학원으로 들어온다. 교무실 쪽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활짝 열고 닫아버린다. 그런 원장 뒤로 돼지 수학이 실쭙실쭙 웃으며 뒤따라 들어온다. 돼지 수학은 키도 크고 몸집도 크다. 허영고 커다란 얼굴에, 딱 끼어서 살을 꼭 누르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다. 돼지 수학은 학원계에 꽤 오래 몸담고 있었다. 잘 가르친다는 소문도 나서, 돼지 수학에게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는 학생도 꽤 된다. 학생 수에 비례해 월급을 받는 학원 시스템 안에서, 돼지 수학의 월급이 원장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수학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돼지는 천박하고 수다스럽다. “이 선생도 나만큼만 해! 나 이번에 마누라 차 바꿔줬잖아. 오펀티라 알고? 이번에 옥색으로 한대 짝 뽑아줬더니, 밤에 서비스가 달라지던데!” 돼지 수학이 제일 좋아하는 수다의 레파토리는 강남의 룬살롱 얘기이다. “이준호 선생은, 순진해서 그런거 잘 모르지? 양주 한병에 200만 원하는 신사동 술집에 가면, 옛날에 텔런트로 잘나가던 황선영이가 술도 따라준다. 개가 그렇게 명기래요. 딱 보면, 개

발목이 무지 얇거든. 알지? 발목이 얇으면 어디가 죽이는지? 어디, 이준호 선생, 발목 좀 봐봐. 여자는 발목이 얇아야 진짜 여자야.”라고 말하며, 내 다리를 흘끔거린다. 난 마시고 있던 비타 500을 돼지 수학의 얼굴에 툭, 툭, 뿜어버리는 상상을 한다. 징그러운 돼지 새끼. 그 순간, 원장이 원장실 문을 열고 나와 나에게 말한다. “이준호 선생, 오늘 고등부 국어 땀방 좀 해라. 들어 가서 언어 영역 듣기 평가나 한 한시간 틀어줘.” 오늘 하루도 지겹다.

오랫만에 대학 선배 오빠를 만났다. 오빠랑은 학생회 활동도 같이 했었고, 사회 이론 수업도 같이 들었던, 학교 다닐 때는 꽤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다. 오빠는 나에게 그람시의 헤게모니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지배 세력이 심어 놓은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 들여서는 안되며, 그 초구조적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지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곤 했다. 일본어를 잘했던 오빠는 정치계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친일파의 청산을 뒤로 미룬 채, 일본 영화를 상영 금지하고 서울대에서 일본어를 제 2외국어 과목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은 웃기지도 않는 사회적 블랙 코메디라며 신랄하게 비웃었다. 오빠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했다. 하루키의 소설을 얘기할 때마다,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로 수줍은 미소를 짓던 오빠의 모습을 나는 기억한다. 오빠는 지금 은행에 다닌다. 은행에서 같이 일하던 분과 결혼을 해서 벌써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오빠를 만난 건 정말 오랫동안이었다. 사실,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것도 같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오빠가 얘기한다. 9시부터 4시까지는 잡무를 보고, 4시 30이후에 은행 서터가 내려가면 진짜 업무가 시작 된다고. 일은 10시 30분 정도에 끝나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바로 푹아떨어진다고. 언니랑 둘 다 은행에서 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긴 했단다. 하지만 오빠네 부부는 더 많이 저축하기 위해 일단 지금은 부모님 소유의 다세대 주택 건물 한층을 빌려서 살고 있다고 했다. “우리 막내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 했거든. 그런데 이 녀석이, 내가 퇴근할 때 가끔 구멍가게에 들려서 과자를 사가니까, 나만 보면 무조건 ‘빠빠, 할미 꼬끼꼰!’부터 외치는 거라. 구멍가게 주인이 할머니거든. 꼬깔콘을 꼬끼꼰이란다. 웃기지 않냐?” 오빠는 너무 재밌다면서 킬킬거리며 웃는다. 난 오빠의 얘기가 하나도 재미없다. “야, 너도 얘기 낱아봐라. 얼마나 예쁜데. 그나저나 준호 너는 언제 결혼할거니? 할거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줄 아니? 그래서 부모가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좋은거야. 늙어서 애기 낳았다가, 애가 아직 대학 다니는데 명퇴라도 당하면 어쩔 거냐, 응? 안그래?”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 소주 한병을 비우고 일어섰다. 잘 들어가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데, 오빠가 말한다. “준호야, 옛날에 너랑 하루키 얘기 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나 하루키 좋아하잖아.”라고. 난 오늘 웬지 하루키가 멋쩍다.

다시 3시. 학원을 들어 서는데, 돼지 수학이 나를 훑어 보며 내 의상에 점수를 매긴다. “이선생, 오늘 모자 달린 옷 입었네? 좋네, 어려보이구.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다, 야. 좋아!

6.7!” 돼지 새끼.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말해 주고 싶다. 주접스러운, 돼지, 새끼. 단어 시험 문제와 오늘 수업할 자료들을 프린트하고, 그것을 다시 10장씩 복사한다. 한 장은 자료 모음 화일에 꽂아 넣고, 한장은 원장에게 제출하고, 한 장은 수업 때 내가 쓸것, 두 장은 여유분, 그리고 학생 6명. 복사를 하고 돌아서는 데, 돼지 수학이 또 내 이름을 부른다. “이준호 선생, 오늘 경수가 왜 저렇게 기운이 없는 줄 알아?” 경수는 학원의 노총각 수학 선생이다. 돼지는 학교 후배랍시고, 항상 작은 수학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해댄다. “경수가 장가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어! 아까,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했거든. 왜 그런줄 알아? 아이구, 완전 반전이야. 웃겨 죽겠네! 대머리라서 그래, 대머리! 장애인이랑 대머리는 그런 데 가입이 안된다네. 재는 이제 불능이야, 불능!” 돼지는 기침 사례까지 들려가며 얼굴이 시뻘게지도록 웃는다.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작은 수학의 얼굴이 빠끔히 올라온다. “왜 이래요, 림싸롱 가면 내가 언니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데!”라고 말하며 씨익 웃는다. 돼지가 질세라 받아친다. “어이구, 이 화상아, 참 좋기도 하겠다. 늙은 원장이랑, 비만인 나보다 인기 많아서. 영어야! 영어가 우리 경수 좀 구원해줘라. 불쌍하잖어! 경수야, 이준호 선생 어때? 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좀 꾸미면 괜찮을 것 같지 않냐?” 라고 말하며 킬킬거린다. 저능아들. 돼지. 돼지비계. 난 다시 내 컴퓨터 모니터 뒤로 숨는다. 최대한 보이지 않게 몸을 잔뜩 웅크린다.

“Anything does not please her.<sup>4</sup> (어느 것도 그녀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문장이니?” 한 아이가 “네”하고 대답하다. “음…… 아니, 틀린 문장이란다. 같은 말을 표현하려면, Nothing pleases her. (아무 것도 그녀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맞는 거야. Not은 앞으로 나오려는 성질이 있거든.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She is pleased with nothing. (그녀는 아무것에도 기뻐하지 않는다) 일거 같지? 하지만, 이것도 틀린 문장이다. Nothing도 맨 뒤로 가는 걸 싫어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Nothing pleases her. (아무 것도 그녀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를 수동태로 고칠 때에는, not과 anything으로 분리시켜서 She is not pleased with anything. (그녀는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라고 해야 맞는 거야……” 아까, ‘네’, 라고 대답했던 녀석이 대꾸한다. “그냥, 그 여자가 하나도 안 기쁘고, 다 싫어한다는 뜻인데, 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고 하나요? 그냥, 싫어하면 싫으면 그만이지!” 아이들이 킁킁거리며 웃는다. 그래, 나도 다 싫다. 나도 도대체가, 모든 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친다. “선생님! 그만해요! 시간 다 됐어요!” 아이들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한다. “그래요. 수동태 부정문이 좀 헷갈리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해줄 테니까, 여기서 with가 쓰이는 거나 일단 기억해 놓기. Be not pleased with~(-에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이

<sup>4</sup> 장재진. 1992. <Man-to-Man 종합영어 III: 태>. 서울: 맨투맨. p265

우르륵 빠져 나간 교실에 혼자 남아 칠판을 지운다. 내 글씨들이 하얀 가루 먼지가 되어서 내 얼굴에 뽀얗게 떨어진다.

학원에서 시켜 먹는 저녁 메뉴는 거의 매일 똑같다. 학원 근처에서 그나마 괜찮다는 분식집의 오징어 볶음밥. 반찬을 안먹어도 돼서 빨리 먹을 수 있고, 맛도 제일 괜찮다며 원장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다. 나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오징어 볶음밥을 먹고, 다르게 먹고 싶은 날 하루쯤은 김치 볶음밥을 먹는다. 배달된 음식은 시간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텔레비전 근처의 테이블에서 신문지를 깔아 놓고 먹는다. 오늘 저녁에는 원장만 빠졌다. 밥을 먹던 작은 수학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건넨다. “이준호 선생, 오늘 심야영화나 보러 갈까?” 내가 가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돼지 수학이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한다. “어머, 어머, 오늘 둘이 일 내는 거야? 얼레리, 꼴레리! 그래, 경수야, 여자는 첫날, 다리를 확 걸어서 넘어 뜨려야 해. 이 선생, 원래,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는 거 알아? 영어야, 여자가 나이 서른이 넘어서 아무 남자든 작업이 들어 오기만 하면,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손목부터 덩씩 잡혀줘야 해. 우리 경수, 드디어 장가가는 구나!” 어찌나 깔깔대며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지, 입안의 음식물이 흰히 다 들여다 보인다. 아, 정말, 더럽다. 작은 수학은 뭐가 좋다고 같이 해벌죽 따라 웃는다. 작은 수학의 볶음밥 기름이 번질번질한 버얼건 입술 사이로, 누런 이가 쏟아질 듯 한가득 보인다. 구역질이 치민다. 그래도 난 꾸역꾸역 밥을 먹는다. 식사를 일찍 끝낸 영어 선생님이 먼저 일어나면서 말한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오징어가 좀 적은 거 같지 않아요?”

오늘도 아버지는 점심에 반주를 한 잔 걸치셨다. 그리고 또 시작하신다. “내가, 어릴 적에 그분 집에 가보면, 집이 항상 손님들로 북적북적 했었지. 다 그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었어. 한번은, 위아래로 하얀 양복을 짝 빼입은 양반이 중절모를 빼딱하게 눌러 쓰고 앉아 있더라구.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이 김두한이었던 거라. 걀째 김두한도 이준호 어른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왔던 거라니까. 그뿐 만이 아니야. 눈이 아무리 와도, 이준호 어른 집 앞에는 눈이 안 쌓여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집 앞 눈은 못 치워도, 어르신 집 앞 눈은 꼭, 반드시 치웠거든.” 엄마와 나는 묵묵히 밥을 먹는다. 아버지의 얘기가 어디로 튈지 알기 때문에, 나는 또 우울하다. “그게 다, 사람들이 그분의 용맹함과 나라를 위하는 고귀한 마음을 하늘처럼 존경했기 때문이야. 그 분이 1942년, 그 어린 나이에 옥고를 치를 때, 그 잔인무도한 일본 순사들이……” 음식을 씹을 때, 한 쪽으로만 씹으면 얼굴이 비대칭이 된다고 한다. 나는 아버지가 그 분이 받아야 했던 잔인한 고문들을 생생하게 늘어놓는 동안, 천천히 횡수를 세며, 밥을 씹는다. 왼쪽으로 세번,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세번, 하나, 둘, 셋. 이제, 그 순간이 왔다. “그런데, 너는 뭐냐, 내가 그분을 닮아 큰 인물이 되라고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좀 야망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도대체가 말이야, 해가 중천에나 올라야 겨우 일어나서는 동네 학원에 나가서 애들이랑 하루 종일 씨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구.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를 하라니까. 그래서 좀 비전이 있는 일을 해야지, 사람이. 니 이름이 이준호야, 이준호. 준호야, 이준호 어른은, 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어! 사람이 큰 뜻을 품고,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되는 거다. 어디, 손바닥만한 동네 학원에 처박혀 지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항상 듣는 소리이건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유난히 더 듣기가 싫다. 미열이 좀 있는 것 같다. 머리도 아프고, 약간 어지럽다. 엄마가 손을 휘휘 저으며, 밥을 다 먹었으면 어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낸다.

약국에 들러 아스피린이라도 사먹을까 해서 평소보다 집을 일찍 나섰다. 아스피린을 한 알 삼키고 학원을 향해 걷는다. 나도 내 삶이 싫다.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지루한 나의 삶이 나도 너무 지겹다. 싸울 게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싸워야 할 적이 분명한 시대에 사람들의 피는 정말 뜨거웠겠지? 넉넉하지 않은 통장 잔고에 벌벌 떨면서 하루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생명이 없다. 학원에 도착하니 시계가 2시 40분을 가리킨다. 집을 나올 때 계산을 잘 못 했는지, 시간이 많이 이르다. 무거운 마음으로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책상 위 먼지를 닦고 있던 경리 아가씨가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한다. 교무실이 텅 비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모양이다. 경리 아가씨가 “영어 쌤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나 지금 은행 갔다 와도 되겠다. 이선생님, 저 은행 좀 잠깐 갔다올게요.” 하며 쪼르르 나가버린다. 수업 시간에 쓸 프린트물을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다. 오늘은 To 부정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1) 서술 용법. 운명의 의미: the day was to decide the fate of Korea.<sup>5</sup> (그날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었다).’ 돼지 수학이 출근한다. “어, 이준호 선생, 오늘 일찍 왔네? 오, 내가 좋아하는 치마 입었네? 이 선생은 그 옷을 입으면, 엉덩이가 좀 빈약해 보이긴 해도,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구. 이 선생이, 다른데는 몰라도 발목은 얇아.” 돼지 새끼. 난 니가 불쌍하다. 아, 머리가 계속 깨질 듯이 아프다. 아스피린 두 알을 더 까서 먹는다. 돼지 새끼 따위는 무시하고, 계속 자료를 만든다. ‘분리 부정사:It was our duty to bravely resist the enemy.<sup>6</sup> (적에게 용감하게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다).’ 그 때, 원장이 작은 수학과 함께 학원 문을 열고 들어 온다. “굳 애프터눈! 어, 마침, 이 선생 나와있네. 할 말 있었는데 잘 됐다. 이 선생, 엇그제 어떤 학부모한테 문의 전화가 왔는데, 우리 학원은 왜 일요일 수업이 없냐고 불평을 하더라구. 요즘 엄마들은, 애들이 학원에 꼬박 나가있어야 안심이 되나봐. 다른 학원들도 일요일 수업을 슬슬 개설하는 추세래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일요일에 영어 듣기 평가반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어때? 이선생, 일요일날 별거 하는 일 없으면, 두 타임만 돌려 줄 수 있어? 뭐, 이 선생이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밥 해줘야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놀면 뭐하니?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할거지? 영어야, 해야된다. 벌써, 학부모들한테 공지 다

---

<sup>5</sup> 위의 책, p229

<sup>6</sup> 위의 책, p260

나갔어.” 그 와중에 작은 수학이 나에게 눈을 찡긐하며 비타 500을 건넨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목적어 역할: She decided to resign her post.<sup>7</sup> (그녀는 사직할 결심을 했다).’

1942년 5월의 어느 밤, 이준호는 사제 폭탄을 가슴에 숨기고 종로 경찰서로 향한다. 이게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다. 항상 아들 걱정에 눈물이 마르실 날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 눈 앞에 아른거린다. 오늘도 집을 나설 때, 어머니의 본능으로 불안을 감지 하시며,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이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그 거칠고 차디찬 손의 감촉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되돌아 갈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때, 길 반대쪽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일본 순사 둘이 이쪽으로 걸어 오는 게 보인다. 이준호는 담장의 그늘 속으로 몸을 깊이 숨긴다. 입안의 침이 바짝 마르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흐른다. 아스피린을 많이 먹은 탓이었을까? 모든 것이 생각보다 쉬웠다. 난 컴퓨터 모니터 뒤에 한껏 숨겼던 몸을 조심히 일으켜서, 작은 수학의 손에 들린 비타 500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돼지 수학의 책상을 향해 힘껏 던진다. 비타 500은 확 날라가, 돼지의 컴퓨터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다. 째깍! 오줌처럼 노르스름한 물이 돼지의 컴퓨터 자판을 타고 흐른다. 돼지가 짹하고 소리를 지른다. “야, 뭐야!” 놀라서 입도 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원장을 향해,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가방을 집어 들고, 학원문을 열고 나간다. 학원문에 달려 달랑거리는 종소리 사이로, 원장이 나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 “뭐야, 이선생! 이준호 선생! 지금 뭐하자는 거야? 이리 다시 안돌아와? 이준호! 영어! 야, 이준호! 이준호!” 난 뒤 돌아보지 않는다. 달빛 한점 없는 밤. 칠흙처럼 어두운 골목의 그늘 사이로, 순사들을 매섭게 쏘아보는 이준호의 두 눈만이 하얗게 반짝인다.

\* 이 소설은 이탈리아인 큐레이터 Cecilia Guida의 프로젝트, <Forgotten Ideas (잊혀진 아이디어)>에 아카이빙되어 있는 폴란드 소설가 Mikolaj Lozinski의 잊어버리고 있던 아이디어를 빌려서 쓴 것이다. <Forgotten Ideas>는 작가, 아티스트, 소설가, 큐레이터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에 옮기지 못하고 있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모아 기록한 아카이브 프로젝트이다. Mikolaj는 유명한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명인과 자신의 삶을 동일화 하는 인물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계획했지만, 쓰지 못했고, 잊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 Cecilia의 아카이브에 기록을 남겼다.

---

<sup>7</sup> 위의 책, p226